돌아온 손담비 파격 변신

메트로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내년 1월 국내대회 출전

하이니 "정우선배 파이팅"

메트로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제2775호 www.metroseoul.co.kr

결국 고개숙인 '악동' 메인즈

1000원의 행복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16일 오후 문을 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23일까지 70일간 운영되며 입장료는 스케이트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이다. /연합뉴스

2억 관객 불러낸 'K-무비 파워'

이번주 중 연 관객 신기록 확실… 박스오피스 톱10 중 무려 8편 한국영화 '제2의 전성기'

국내 영화 시장에 2억 관객 시대가 열렸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체 관객 수는 1억9932만8288명을 기록했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만~30만 명이 극장을 찾는 것을 감안하면 18, 19일쯤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국민 1인당 1년에 극장에서 4편의 영화를 봤고, 하루 평균 56만 명이 영화관으로 향한 셈이다.

이 같은 대기록 달성은 한국 영화의 선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 한국 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1억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해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한국 영화는 올해 무려 한 달이나 이른 11월 29일 1억1478만 명을 모아 지난해 기록(1억1461만 명)을 넘었다.

세계적인 명성의 한국 감독이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부터 신예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쏟아졌고, 유능한 신인 감독들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올해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열었다.

봉준호 감독은 할리우드 스타를 기용한 '설국열차'로 933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흥행 2위에 올랐다. '설국열차'의 송강호가 주연을 맡은 '관상'은 사극 열풍 신화를 재현하며 913만 관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올해 관객 동원의 일등 공신은 '7번방의 선물'이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개봉(1월 23일)한 이 영화는 1281만 명을 불러모으며 역대 흥행 순위 3위에 자리했다.

올해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도 '베를린'(716만 명), '은밀하게 위대하게'(695만 명), '숨바꼭질'(560만 명), '더 테러 라이브'(557만 명), '감시자들'(550만 명) 등 8편에 달했다. '도둑들'(1298만 명), '광해, 왕이 된 남자'(1231만 명), '늑대소년'(665만 명) 등 3편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며 다양한 콘텐츠에 관객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입증했다.

한국 영화의 선전으로 전체 극장 매출도 급성장했다. 2009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래 소폭 상승세를 보여오다 지난해에는 1조4551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이미 1조4500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1조5000억원 돌파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30~40대 "영화는 문화 아닌 생활"

콘텐츠의 발전적 변화 외에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람 문화 변화도 관객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30~40대를 중심으로 자녀를 동반하거나 부모와 함께 극장을 찾는 관객이 많아졌다.

맥스무비 영화연구소 김형호 실장은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경험한 1990년대 학번이 30~40대 부모가 되면서 영화 관람을 가장 대표적인 오락 문화로 삼고 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계획적으로 극장을 찾는다"며 "뮤지컬·연극 등과 함께 '문화 생활'로 분류되던 영화가 이들에 의해 '생활 문화'로 바뀌는 양상이다"고 분석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미세먼지보다 작은 로봇 몸속 들어가 암진단·치료

국내 연구진 의료용 나노로봇 첫 개발

1987년 개봉한 SF영화 '이너스페이스'에는 파리만큼 작아진 잠수정 로봇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암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온다. SF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이 같은 상상이 25년여 만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남대 박종오 교수가 이끄는 박테리오봇 융합 연구단이 생물인 박테리아와 무생물인 약물을 결합해 암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용 나노로봇인 '박테리오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생물체인 박테리아와 약물이 들어있는 마이크로 구조체 등 두 부분으로 이뤄진 박테리오봇은 미세먼지보다 작은 직경 3㎛(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초속 5㎛로 이동할 수 있다.

박테리아들이 암을 찾아내면 마이크로구조체가 터지면서 암 표면에 항암제가 뿌려지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고형암(대장암, 유방암·위암, 간암 등 고형 장기에 발생하는 암)에 걸린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진단·치료 가능성을 입증했다.

박종오 교수는 "박테리오봇이 실용화되면 미세한 조기 암도 찾아가 항암제를 주입할 수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원천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료용 마이크로 나노로봇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kmine@

3호선 최대 20% 감축…'교통대란' 우려

'지하철 운영' 서울메트로 노조도 내일부터 공동파업
대학생 대체인력 투입한 4호선에선 승객 사망사고

철도노조의 파업 여파로 16일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삼송 구간의 운행횟수가 20% 감축됐다. 특히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18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와 공동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16일 "지하철 3호선 공동 운영자인 코레일이 오늘 새벽 해당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를 100회에서 80회로 줄이기로 통보해왔다"며 "서울메트로에 지축~오금 구간의 자체 운행을 기존 310회에서 316회로 증편하도록 조치해 3호선 전체 구간의 운행 횟수는 410회에서 396회로 3.4%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9개 노선 가운데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9호선은 메트로 9호선이, 2호선은 서울메트로가, 1·3·4호선은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이 공동 운영 중이다. 따라서 1·3·4호선은 코레일의 사정에 따라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지하철 운송 차질에 따른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퇴직 기관사 43명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했고, 서울메트로가 파업에 들어가면 시 직원 440명과 경찰 924명을 투입해 정상 운행을 돕기로 했다.

서울메트로 파업 8일째부터는 평시 대비 90% 수준 운행을 목표로 세우고, 심야 운행 시간을 오전 1시에서 자정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파업의 상황에 대비해 구로~청량리역, 신림~삼성역 등 7개 노선에 자치구 전세버스를 173대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추가 운행 계획을 마련했다. 또 예비 차량을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택시 1만 590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15일 밤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는 80대 할머니 김모씨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발이 문에 끼어 1m 이상 끌려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한 승무원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철도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순기자 m.kim@metroseoul.co.kr

붐비는 퇴근길 16일 오후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사가 퇴근길 승객들로 가득하다. 이날 서울시는 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3호선 운행횟수를 줄인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지도부 10명 체포영장… 강제구인 나설 듯

검찰과 경찰이 철도 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오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노조 지도부에 세 차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노조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등 5개 지역 노조 본부장 등 10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서부지검 등 5개 검찰청에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이 나오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검거할 예정이다.

검찰은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에 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현정기자 jh@

쌍용건설, 그리고 방관자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쌍용건설이 연일 이슈다. 쌍용건설은 대기업 계열의 건설사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큰 뿐 아니라,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 1위이자 아파트 리모델링 업계 1위를 자랑하는 업체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의 쌍용건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선 상태다. 상장폐지와 함께 법정관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물론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처럼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은 게 확실하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 법정관리로 가는 게 옳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줄도산까지 감수할 만큼 쌍용건설의 존속 가치가 정말 경쟁이 없을까? 더군다나 이번 실사 결과를 두고 공정성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실사 평가 결과가 맞다 하더라도 존속 가치가 높았던 쌍용건설이 1년도 안 돼 청산가치가 높은 회사로 뒤바뀌는 사이 채권단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쌍용건설 위기의 1차적 원인은 경영진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때 매각을 하지 못해 회사 부실을 키웠고, 군인공제회는 비협약 채권단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공사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거는 등 쌍용건설을 사지로 몰고 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쌍용건설을 망가뜨렸다고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논란이 씁쓸한 이유다.

알림

메트로신문 2기 수습기자 공채 2차시험 합격자

강신혜 김지민 김지현 김학현 박수정 배아람 백익준 서승희 신자혜 안성은 양지원 윤화정 이정윤 이주희 이충범 임보진 천보진 정혜인 조윤영 최아람 한윤정 /이상 21명(가나다순)

metro

박 대통령 "북 정세 불투명…돌발사태 대비"

박근혜 대통령이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16일 청와대에서 잇따라 회의를 주재하고 민·관·군의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서해 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후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공유와 대북 공조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동양비리' 현재현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현재현(64·사진)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회장은 검찰청사에서 "저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동양그룹이 계열사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CP 발행을 계획한 건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조현정기자 jh@

무인 민원발급 수수료 내년부터 200원 인하

내년부터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창구 수수료 감면은 민원발급기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정시모집 예정대로

수험생 38명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수험생들이 "수능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수능 성적 및 등급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는 기존 정답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ㄷ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총 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 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 지문은 명백히 옳고 ㉡, ㉣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기에 따라 옳거나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지방세 2년간 3000만원 넘게 안낸 1만4500명

8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4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원은 지난해대비 2971명(25.7%)이 늘었다. 전체 체납액 역시 2조13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03억원(26.6%) 늘었다.

조동만씨가 개인으로 전국 체납액 1위였고, 법인 중에는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주)이 올랐다. /김민준기자 mkus@

"명태야, 황태 되거라"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16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의 한 황태덕장에서 명태를 거는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산타와 함께한 350명 천사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16일 종로구청 종로가족관에서 장애·비장애아 350여 명이 함께하는 '장애아동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와 비장애 아동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진정한 통합 교육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산타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선물 증정, 색깔판 뒤집기, 도넛판 쌓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인 이시형 박사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놀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은 장애아에게는 사회적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 비장애아에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과 정서 함양을 돕고 희망을 주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illegible]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라이트 형제, 인류 최초 비행 성공

1903년 12월 17일,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미국인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비행기가 인류 최초의 비행에 성공했다. 최초의 비행기 이름은 플라이어 1호. 12초 동안 36m를 날아오른 건 형 윌버가 아니라 동생인 오빌 라이트였다. 2년 뒤 플라이어 3호는 4기통 13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달고 38분 동안 45km 비행에 성공했다. 그제야 인류는 [illegible] 새 것[illegible]에 대한 [illegible]을 [illegible]수 있었다.

한방칼럼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지압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현기증, 수족냉증,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마비, 부정맥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일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일반에서 마치 선지와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다. 대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illegible]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illegible]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장해물을 [illegible]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illegible]

한의학박사 허철구 원장

[illegible]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다시 [illegible]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법을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할 수도 있다.

택시 감차신청 '0'

부산시 택시 정책에 감차사업 신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 등 택시 관련 법안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감차사업 등이 국토부의 택시발전법 제정 지연에 따른 택시발전종합대책 미발표로 후속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된 1425대의 택시 총량 초과 대수의 감차를 추진해왔다. 택시 총량 산정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택시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택시 총량 산정에도 불구하고 감차 사례는 전무하다. /뉴시스

충렬로 BRT 도입 설계용역

부산시가 만성 정체 구간인 충렬로의 버스 통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BRT)을 도입하기로 하고 설계 용역을 시작했다.

중앙버스차선제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결합한 BRT는 버스의 정시성을 도시철도 수준으로 높이며 버스 통행 속도를 20% 가량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16일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와 동래구 내성교차로를 잇는 충렬로 7.4km 구간에 대한 BRT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버스 중앙차전제 시행,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 급행버스 전용차량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인데 시는 정류장 광고권을 주는 대가로 민간자본 100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간선 급행버스체계가 시행되면 버스가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도록 신호를 조절하는 우선 신호체계가 도입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출퇴근 시간대 충렬로의 버스 통행 속도는 시속 19.2km에서 23km로 2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 시간은 현재 36분에서 25분으로 30% 단축됐다.

고액 상습 체납 854명 공개

부산시는 16일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 게시판 등을 통해 854명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자다.

시는 홈페이지 등에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를 공개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가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854명이며 체납액은 844억원에 달한다. 법인이 262개 업체 395억원, 개인이 592명 449억원이다.

세계가 인정한 '안전도시' 부산

광역시 단위로는 첫 WHO 공인인증 획득
해외기업·국제행사 유치에 큰 도움 기대

부산시가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시는 광역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년간 171개 기관, 단체 및 부서가 참여해 306개 시민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에 손상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인정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2009년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을 통해 손상률과 시민 안전에 관한 요구도를 조사해 2010년 민선 제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서 구체화됐다. 이어 2012년 안전도시 지원조례 제정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해 171개 기관, 단체 및 부서에서 306개 시민 안전 증진 세부사업도 확정했다. 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 의장 등 실사단의 엄격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실사 과정도 거쳤다.

현재까지 세계 33개국 317개 중소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광역시 단위로는 부산시가 세계 최초다. 이번 부산의 광역시 단위 첫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 브랜드 향상은 물론 해외 기업과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현 정부 국정 핵심 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광역시협의회 출범,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시민안전종합대책 마련, 시민 안전 증진사업 추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에 부산시가 수상한 안전문화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중앙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전국 120개 기관, 단체가 신청했다.

1차 서류 심사로 17개 기관, 단체가 선정됐다. 이어 2차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 수상 기관이 결정됐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부산시는 특별교부세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시상식은 12월 1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전국대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시 조성호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과 안전문화대상 수상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인증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게 됐다"며 "내년에도 각종 안전시책 추진과 제7차 아시아 안전도시 연차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포획 금지 암컷 대게 보관한 유통업자 검거 울산해양경찰서는 16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A씨를 입건하고, A씨가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사들여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창고에 보관 중인 암컷 대게 330마리를 공개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시 보조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라니…"

벡스코 부당과세 반발

지방정부 출자 기관이지만 영리법인인 부산 해운대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BEXCO)에 지원된 부산시 보조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까?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벡스코에 지원된 부산시 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벡스코 측에서 부당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부산국세청과 벡스코 등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지난 7월 벡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올해 부산시 보조금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원과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등 모두 15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 보조금은 벡스코 주관 행사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금이다.

벡스코는 이 보조금 가운데 전시관 사용료 등 벡스코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외 수익'으로 잡고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나머지 비어여 유지비 등 순수 행사 지원을 위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보조금을 통해 벡스코가 직접적인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이 없는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벡스코는 최근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이달 말까지 이번 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지역 대학가에도 확산됐다

철도 파업 등 사회 현안에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부산지역 대학가에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동아대 인문대와 중앙도서관 등 4곳에 방사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국문과 송원이라는 필명의 대자보는 "말씀 송전탑, 국정원 대선 개입,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최종 승인, 학과 통폐합 등의 학내외 사안에 대해 자신은 침묵하고 방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의 침묵은 미래의 고향, 교육, 정치가 될 것"이라며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제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닭의 부리질이 됐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은 아고라 서명운동에 댓글 하나 달아주는 일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학생은 대자보에서 "제 자식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며 "훗날 자녀들의 안녕을 바라는 당신은 오늘 안녕하신가요?"라고 물었다.

이외에도 부산대와 한국해양대 학내 게시판 곳곳에서도 "조그만 물방울이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왜 궁금증과 의혹을 안고 계속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의 한 회원이 15일 오전 부산대에 붙은 대자보를 뜯어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 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아대 인문대 부근 게시판에 붙은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연합뉴스

송도 앞바다 해상산책로

서구 사업비 60억 들여 2015년 완공… 길이 343m 바다 위 걷는 스릴 만끽

스카이워크처럼 바다를 투명 강화유리 등으로 만든 해상산책로 조감도. /뉴시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동쪽에 있는 거북섬 양쪽 바다 가운데에 해상 산책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구는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제1구역 2단계 공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길이 343m, 폭 2.3m, 높이 5.5~8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해상 산책로는 거북섬 양쪽 바다 한가운데에 건설되는데 스카이워크(Skywalk)처럼 바다을 투명 강화유리와 메탈라스, 목재 데크 등으로 만들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황홀함과 스릴 만점의 짜릿함을 느껴볼 수 있게 만들어진다.

해상 산책로에는 바다전망대와 벤치, 망원경이 설치돼 바다 풍광은 물론 아름다운 송도의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거북섬 앞 해안 도로변의 절개지 방지시설인 파제벽(218m)에 디자인 타일을 붙여 낡고 칙칙한 콘크리트 벽면에 생기와 표정을 불어넣는 등 주변 경관을 말끔하게 단장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가운데 제1구역 공사가 모두 완공되게 된다.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157억여 원(공유수면 매립비 포함)을 투입해 송도해수욕장을 동편 제1구역 거북섬테마공간과 서편 제2구역 오션파크로 나누어 사계절 여가와 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업은 섬 전체를 거대한 거북이 형상으로 꾸미는 거북섬 정비를 비롯해 연육교 설비 잔교, 방파제 휴양공간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제1구역 1단계 친수공간 정비 공사가 지난 7월 완공된 상태다.

제2구역 공사는 1만9240㎡의 공유 수면을 매립해 텐트(19면), 캐러밴(18대)을 갖춘 캠핑장, 숙박시설인 힐링의 광장을 비롯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젊음의 광장, 전시 공연과 각종 행사를 펼칠 수 있는 해변의 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뉴시스

부산우리들병원 저소득층 무료수술

부산우리들병원이 연말을 맞아 저소득층 무료 수술을 지원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최 모(58)씨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해 올해 7월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등의 진단으로 수술 치료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가정 형편상 큰 의료비 부담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해 고통을 참으며 지내왔다. 최근에는 근로 활동도 하지 못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정신적·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이에 부산우리들병원은 금정구청과 연계해 지난 최씨의 척추질환 수술을 진행했다. 이번 수술로 최씨는 근로 능력을 회복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최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 삶을 찾은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을병욱 원장과 수술 시행 이후 마른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수술 전 최씨가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부산우리들병원 설병욱 병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키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부산과기대 사랑의 김장 16일 오전 부산과기대 학생식당에서 김기성 오른쪽 첫 번째 부산과기대 총장과 김광대 왼쪽 첫 번째 부총장이 참여를 오른쪽 두 번째 구포3동 동장과 함께 '이웃사랑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북구 구포3동 지역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독거노인등에게 전달됐다.

강서구에 여성기업인용 산단 생긴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구역 일부에 조성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여성 기업인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부산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구역 가운데 일부 부지를 여성 기업인 전용 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23일 여성 기업 22곳과 입주 계약을 맺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지는 화전지구 북쪽 지역으로 9만5961㎡ 규모다. 입주 예정 업종은 금속 제조, 전자부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타 기계 장비 등이다.

부산시는 입주 기업 자격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는 여성기업 전용 산단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원자재 공동 구매, 경영정보 공유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설과 물류의 공동 이용으로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성추행 전 의원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철암)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J(52) 전 부산 모 구의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가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2학년 A(9)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한 J씨는 수업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태화강 철새공원 19일 준공

울산시는 국가하천 태화강 남쪽 삼호지구 철새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9일 철새공원 광장에서 준공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강 북쪽 태화동 앞 태화강대공원과 함께 남쪽에도 시민 친수공원이 들어서면서 태화강은 '명실공히 생태도시 울산' 대표 브랜드로 떠올랐다.

시는 국비 319억원을 들여 2011년 말 옛 삼호교에서 와의삼거리까지 2㎞에 이르는 26만㎡ 규모의 삼호지구에 조류 서식지 및 대숲 확장 공사 첫 삽을 떴다. 수목원 등 사유지를 협의 보상 및 이전하고 무허가 건물 및 지장물을 철거했다.

국내 최대 백로의 까마귀 서식처인 삼호대숲은 6만5000㎡에서 12만2000㎡로 늘어났다. 잔디광장(1만9000㎡)과 야생초화원(1만3000㎡), 자전거도로(1.7㎞), 산책로(2.8㎞)도 만들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289억원을 들여 태화강 지방하천 구간인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범서읍 천암리 13㎞ 구간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공정률 27%로 내년 말 준공한다.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코스닥
1961.15 (-1.76)	488.19 (-6.17)

금리	환율
2.82 (-0.04)	1052.50 (-0.50)

뉴스 & 뉴스

의료정밀업종 수익률 1위

●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8개 업종지수의 지난해 말 대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의료정밀 업종이 전년 말 1197.39에서 현재 1840.17로 53.68%나 뛰면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1.46% 내렸다. /김현정기자

기업대출 30% '자영업대출'

● 올해 은행의 기업대출 중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원화 대출 잔액(잠정치)은 636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사업자에게 빌려준 대출은 29.8%인 189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김민기자

"해외서 분실폰 로밍요금 절반, 이통사 배상"

해외에서 분실한 휴대전화에 부과된 로밍 요금의 50%를 이동통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후 발생한 로밍 서비스 요금에 대해 통신사가 고객 보호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요금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6월 해외 출장 중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해 다음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으나 발신 정지 등 피해를 막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600만원이라는 요금 폭탄을 맞았다. 귀국 후 김씨는 통신사에 부적절한 응대 등을 이유로 요금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유심칩을 도용한 부정사용, 발신 정지 신청 등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현기자 kmlee@

'황의 법칙' 위기의 KT 구할까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차기 CEO 낙점…"경영혁신·시장 창출 능력 갖췄다"

KT가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황창규(60·사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낙점했다.

KT CEO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KT 서초사옥에서 전날 선정한 후보군 4명(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권오철 SK하이닉스 고문, 김동수 전 지경부 차관,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장)을 두고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CEO추천위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자로 추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내년 1월 중순께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식 CEO로 임명된 뒤 향후 3년간 KT를 이끌게 된다.

황 전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이던 2002년 국제반도체회로학술회의(ISSCC) 기조 연설에서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을 발표했고, 이후 이 법칙은 반도체 산업 성장을 설명하는 업계의 정설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성균관대 석좌교수 및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을 역임했다.

KT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은 KT의 미래전략 수립과 경영혁신에 필요한 비전설정능력과 추진력 및 글로벌마인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대표적인 IT분야 전문가이면서 새로운 시장창출 능력과 비전실현을 위한 도전정신을 보유한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전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강점"이라며 "현재 KT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 전 사장에게도 걸림돌은 남아있다. 제조업체 경영자 출신으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통신분야 경험이 없다는 약점과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데 대한 내부 반발도 어떻게 대처할지가 최대 난제다.

한편 KT는 회장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각종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황 전 사장이 위기의 KT를 다시 국민 통신기업으로 일으키고 여론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탈리아에서 온 '손편지 쓰는 맛' 16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이탈리아 전통공예 브랜드 '일 파피로(IL PAPIRO)' 초대전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초대전에는 수제 필기구, 카드, 봉투, 노트, 전통 필기구 등의 제품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美 FOMC 회의 개막은 국내증시 호재"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FOMC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17~18일 열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FOMC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을 억눌렀던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장희종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자산 매입 축소가 다음 회의로 연기된다면 단기 불안요인의 해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제 결정돼도 그만큼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반응한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가격 메리트 보유 종목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장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양적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FOMC 이후 어떤 형태로든 감소될 것"이라며 "FOMC 결과를 확인하고, 모멘텀과 수급 변화 등을 파악한 후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감소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면서 "FOMC 이전에는 조그만 뉴스 하나에 대해서도 지수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m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TEL 02)721-9800 FAX 02)730-198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확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김상관
서울광고문의 02)721-9811~3
부산광고문의 051)559-2160
독자센터 02)721-985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96

예술 작품 된 '포드 링컨'

29일까지 신사전시장 '…이매진 프로젝트'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링컨 제품을 주제로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링컨 라-이매진 프로젝트전(展)'을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포드 링컨 신사전시장에서 연다.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링컨 라-이매진 프로젝트展'은 링컨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전통에서 참조하는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국내 예술계 각 분야의 선도자들과 함께한 '링컨 라-이매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3명의 작가들이 창조한 작품을 전시하고 대중들에게 직접 선보인다.

'링컨 라-이매진 프로젝트'는 링컨 브랜드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링컨 고유의 캠페인으로 각자 다른 분야에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추구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포드코리아는 2013년 권오상 작가, 에브리웨어(정현우 허윤실), 그리고 황성도 작가를 2013년 '링컨 라-이매진 프로젝트' 협업 작가들로 선정했으며 이들이 링컨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디자인 철학 그리고 제품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링컨 MKZ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작품 창조를 지원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일 작품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조된 결과물들로 작가들은 소재, 과정, 표현 기법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링컨과 MKZ의 가치들을 작품에 담아냈다.

20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마스터 클래스는 링컨 라-이매진 프로젝트를 통해 창조된 작품을 아티스트가 직접 소개한다.

/정degree기자 ferrari@metroseoul.co.kr

미디어아트그룹 에브리웨어의 작품 '클라우드 파크(Cloud Park)'展 사진. 권오상 작가의 부조 작품 'MKZ'

'와! 와인 싸네' 롯데백화점이 19일까지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와인을 정상가 대비 3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마감 2013 월드 와인 페스타'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재벌가 주식자산 5년간 30조 폭증

지난 5년간 30대 그룹 총수 가족의 주식자산이 30조원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16일 30대 그룹 총수 및 직계가족 119명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지분 가치가 지난 12일 현재 49조1660억원으로 지난 2008년 12월 12일의 20조1780억원보다 143.7% 늘어난 28조98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최고 주식 부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가족의 주식자산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족 3명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는 2008년 2조2830억원에서 올해 13조8710억원으로 11조5890억원 늘었다.

/김학철기자 kuaihe@

은행 부행장들 '세대교체'

50년대서 60년대생으로… 연말 임원 물갈이

은행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임원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주하 신임 행장이 내정된 농협은행은 이번주 부행장 인사를 단행한다. 현재 8명의 부행장 가운데 절반인 김승희 수석부행장, 김용복 부행장, 김종은 부행장, 김홍무 부행장 등 4명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3일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주사와 계열사 임원 인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삼재·김영표·최원수 부행장이 임기 만료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하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일부 영업점 통폐합·축소와 맞물려 하나·외환은행 본부장급 임원 자리가 1~2개씩 줄어들 수 있다.

KB금융지주는 연말 국민은행의 임원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초 지주 차원의 임원 인사가 진행된다. 국민은행 부행장급 인사는 대부분 유임되는 가운데 KB금융 계열사 중 KB인베스트먼트, KB데이타시스템, KB저축은행 대표가 교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오는 27일 차기 행장의 선임 이후 내년 초 임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측은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인사 폭은 작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말 인사에서는 현재 1950년대생이 주축인 은행권 부행장급 임원들이 50대 초반의 196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illegible]

알뜰폰 고속성장기 진입

내년 주목할 방송 서비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방송통신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창조경제'를 화두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목받았다. 방송업계는 아날로그 방송에서 탈피해 디지털 방송 시대를 열었고, 통신업계는 속도 경쟁이 불붙으며 광대역 LTE, LTE-A 서비스가 등장했다. 내년 방송통신업계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눈여겨봐야 할 서비스를 정리해본다.

방송통신업계는 내년 알뜰폰, UHD 방송, 광대역 LTE 전국망 시대, 보조금 주도 사업자 논란, 유료 방송업계 HTML5 바람 등이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제공

◆알뜰폰 가파른 성장세 지속

알뜰폰(MVNO) 시장이 내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우체국·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오프라인 판매망을 넓힌 알뜰폰은 가입자 수가 250만 명에 달하며 전년(127만6000명)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내년에는 우체국·농협 등 판매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으로의 진입 등을 계기로 제반 환경이 갖춰지며 올해보다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초고화질(UHD) 방송 시대 개막

기존 HD 방송 대비 16배, 풀HD 방송 대비 4배 선명한 UHD 방송 시대가 도래한다. 케이블 TV 업계는 지난 7월 시범 방송에 들어갔고 내년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으로 압축 기술을 확보한 케이블 업계는 TV 제조사와 협력해 하드웨어 부문에서 준비에 나선 한편, 디지털 케이블 주문형비디오(VOD) 제공사인 홈초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광대역 LTE, 전국망 시대 열린다

지난 8월 진행된 주파수 경매를 통해 KT와 SK텔레콤이 1.8GHz 대역을, LG유플러스가 2.6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고, 기존 LTE 대비 최대 두 배 빠른 '광대역 LTE 시대'를 열었다. KT와 SK텔레콤은 기존에 이용 중인 1.8GHz 대역을 확보해 LG유플러스보다 빠르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2.6GHz 대역을 확보하며 새롭게 망 구축을 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 연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보조금 첫 제재 주인공은

방통위는 이달 말께 보조금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도 사업자로 선별되는 업체는 내년 1월 영업정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올해 초 이통 3사가 모두 영업정지를 받았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단독 영업정지가 유력해 영업정지 기간 경쟁사에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SBA-기보 기술창업자 공동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합쳤다.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창업본부는 최근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와 함께 예비 기술 창업자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SBA 창업본부와 기보의 주요 협력 분야는 공동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이다. 진흥원은 기술 기반의 우수한 예비 창업자를 선정해 특화된 창업 교육을 시행하고, 기보가 교육과정 내 커리큘럼에도 참여해 멘토링 및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종혁 SBA 창업본부장은 "지식 및 기술창업에 특화돼 창업보육 전문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기술자금 전문 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 간의 상호 협력 프로그램이 구축된 것"이라며 "이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우수 창업가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90% "네이버 선호"

네이버 잡코리아 YBM코리아 CGV 11번가 꼽혀

취업 매거진 캠퍼스 잡앤조이는 지난달 15~20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IT·쇼핑·문화생활·교육 분야 '올해의 핫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항목별로 제시된 브랜드 5~20개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두 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검색포털로는 네이버가 90.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구글(47.1%), 다음(43.8%), 네이트(17.2%)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포털은 잡코리아(66.1%), 사람인(51.5%), 인크루트(37.8%) 순으로 나타났다. 어학원 부문에서는 YBM코리아(62.7%), 해커스어학원(56.4%), 파고다어학원(32.4%) 등이 인기를 끌었다. /[illegible]

'한 지붕 두 가족' 수익형 평면 통했다

올해 인기 끈 아파트 평면 트렌드

1층 세대엔 테라스 제공 강아지방까지 옵션 등장

올해는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종전과 같은 아파트로는 까다로워진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공간이라도 보다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면이 쏟아졌다. 건설사가 평면 개발에 주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독점 수요를 겨냥한 설계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평면의 다양화, 타깃형 설계 돋보여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일명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불리는 수익형 평면의 공급이 올들어 유독 활발했다. 하나의 주택 안에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집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마포구 현석동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전용면적 84㎡ 일부에 수익형 평면을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회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고, 커뮤니티시설이 좋아 수요자들이 향후 공실 우려가 적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 SK 스카이뷰',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롯데캐슬 리치' 일부 세대에 수익형 평면을 선보였다.

가족 구성원 각각을 타깃으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아파트도 등장했다.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 힐스테이트'는 무려 45개의 다양한 평면을 선보이는가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아지방까지 옵션으로 제공했다.

삼성물산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전용면적 84㎡에 적용된 수익형 평면

◆안 팔리는 1층 대형보다 실속 있게

인기가 없어 잘 안 팔리는 1층과 대형 주택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평면의 변화도 눈부시다. 1층 세대에는 테라스하우스 또는 다락방 등을 제공하는가 하면, 대형과 초고가로 대변되던 펜트하우스의 면적과 가격을 다운사이징해 공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주)효성은 경북 칠곡군 남율2지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2차 1층 세대에 지하 다락방을 제공했고, 삼성물산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 '래미안 위례' 대우건설 '관악파크 푸르지오' '봉담 푸르지오' 등은 테라스하우스로 공급돼 눈길을 끌었다.

또 우남건설이 고양 삼송지구에 공급한 '고양 삼송 우남퍼스트빌'은 1층은 테라스하우스,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전용면적 113㎡ 주택형으로 선보였다.

/박선옥기자 psu@metroseoul.co.kr

수도권 중대형 6년째 내리막

2007년 최고점 대비 20%↓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가 2007년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133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 회사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6년(1605만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2007년 1648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3.3㎡당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1550만원으로 크게 하락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기간 3.3㎡당 매매가는 315만원(-19.1%)이나 빠졌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023만원으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 1259만원보다 236만원이 하락했다. 특히 과천시가 3082만원에서 1059만원 내린 2023만원을 기록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성남시가 현재 1574만원으로 2006년 2173만원 대비 599만원 낮아졌고, 고양시가 375만원(1391만→1016만원), 안양시가 369만원(1532만→116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2013년 현재 중대형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931만원으로 2006년 2174만원보다 243만원이 낮았다. 송파구가 2762만원에서 2084만원으로 가장 많은 678만원이 빠졌고, 강남구 646만원(3641만→2995만원), 양천구 633만원(2771만→213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가격 부담이 큰 중대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급감하고, 소형을 찾는 사람들은 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선옥기자

SK건설 희망메이커 송년행사 SK건설이 지난 주말 서울 신도림 숭실대학교에서 저소득 가정 후원을 위한 '희망메이커 사랑나눔 페스티벌' 송년 행사를 열었다. /SK건설 제공

외환은행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PF 협약

외환은행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권 전체 대리은행으로 선정돼 2조2700억원의 금융 주선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2월 국내 금융자본으로 복귀한 후 투자은행(IB) 본부 신설을 통해 11월 제주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올해 4월 제주군인비오피스 와 6월 '대구혁신도시열병합발전사업' 금융 주선 등 국내 주요 IB 사업을 연이어 성공시킨 바 있다.

이날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PF 협약식에는 포스코건설 정동화 부회장, NSIC 스탠 게일 회장, 외환은행 이계탁 IB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진행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전통적인 PF 방식이 아닌 새로운 구조와 금융 형태를 갖춘 도시개발사업 개발금융의 시험을 여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새해 부동산 세제·제도 미리 체크하세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입법 작업에서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늦게나마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의 시행 여부와 이미 확정돼 내년부터 달라지게 되는 각종 제도 등이 새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미리 꼼꼼히 내용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선 담장 4.1대책에 따라 적용됐던 양도세 한시적 감면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세율이 영구적으로 낮아진다.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성인 연령 기준 역시 만 19세로 낮아진다. /박선옥기자

"게임 안풀리네" 백기 드는 게임 CEO들

컴투스 박지영·엔트리브소프트 김준영 대표 사의 NHN엔터 이은상 한달째 병가

우리나라 게임업계 유명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물러나고 있다. 실적 부진과 건강 문제 등 사연은 다양하지만 게임업계의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는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명 여성 CEO이자 15년간 컴투스를 이끈 박지영 대표는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컴투스는 카카오 게임 플랫폼이 주류로 떠오른 시장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하락을 겪어왔다.

NHN엔터테인먼트 이은상 대표는 신병계 이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병가 중이다. 지난 8월 1일 네이버와 분사한 이후 100여 일 만에 터진 이 대표의 공백에 대해 술한 억측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원진 불화설 퇴사설, 경질설 모두 아니다"면서 "업무 과로 누적으로 당분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공백 한 달째를 맞는 이 대표의 복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인기 골프게임 '팡야' 등 만든 엔트리브소프트 김준영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임직원들에게 e메일로 "자기 관리에 소홀해 건강을 못 지키고 현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던 리더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실적 부진과 모바일게임 출시 불발 등으로 최근 구조조정을 밟았다.

대표 공백을 맞은 한 기업 관계자는 "10년 넘게 회사를 이끈 대표가 뒷모습 좋게 떠나진 못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업계 대표 CEO들의 퇴진 시기가 연말에 겹치고, 업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더욱 걱정스럽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CEO마다 물러난 이유와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확대 해석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张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왼쪽부터 컴투스 박지영·NHN엔터테인먼트 이은상·엔트리브소프트 김준영 대표.

소리바다 해외 진출 가속 구글 뮤직 등에 음원 공급

소리바다가 해외 음악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구글 뮤직, 스포티파이와 해외 대상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소리바다는 그동안 다운로드 시장 글로벌 1~2위 업체인 아이튠즈, 아마존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해 K-팝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스트리밍 시장에도 진출해 토종 음악의 해외 유통을 강화했다.

구글 뮤직은 올해 5월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이후 미국 및 유럽에서 호평받으며 성장하고 있고 스포티파이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세계 30여 국에 진출해 가입자 2400만 명을 확보한 플랫폼이다. /박성훈기자

인스탁스 해외봉사 프로 '나누미셔터 5기' 모집중

한국후지필름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스탁스 해외 봉사 지원 프로그램 '나누미셔터 5기'의 참가자 신청을 26일까지 받는다.

한국후지필름 공식 홈페이지(www.fujifilm.co.kr)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fujifilmkorea)을 방문해 운영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 등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인스탁스를 활용한 봉사활동 아이디어 혹은 사연을 접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나누미셔터로 선정된 참가자 20명은 '인스탁스 미니25' 카메라 1대와 미니필름 15팩을 지원받아 사진을 거의 찍어본 적 없는 오지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즐거움을 나누게 된다. /이국현기자 kmlee@

아이패드 에어·미니 레티나 국내 출시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의 국내 공식 발매일인 16일 오전 애플 공인 대리점인 명동 프리스비 매장에서 시민이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는 와이파이 모델 가격은 용량별로 각각 62만, 52만원, 50만, 86만원이다. /연합뉴스

무선타고 인터넷인구 4000만 돌파

스마트폰 보급 확대 결과

국내 인터넷 이용 환경이 유선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3만 가구 및 가구원 7만7402명(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4008만 명으로 전년(3812만 명) 대비 196만 명 늘었다. 이는 2003년 2922만 명 대비 10년 만에 약 100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이용률은 65.5%에서 82.1%로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보유 가구 비율도 지난해 65.0%에서 올해 79.7%로 14.7%포인트 늘었다. 2011년 42.5%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성장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지난해 대비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7.4%에서 98.1%로 증가했지만 유선 인터넷 접속률은 오히려 82.1%에서 79.8%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그만큼 무선 인터넷 이용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무선 인터넷 이용 증가로 장소에 구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도 지난해 58.3%에서 91.0%로 크게 높아졌다. /서무진기자 jy0403@

요즘 명품, 귀에 꽂혔다

하만카돈·JBL매장 고가 휴대용 오디오 인기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소소한 사치라고나 할까요?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 어려워요."

지난 16일 서울 대치동 하만카돈·JBL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난 이은미(31)씨는 고가 오디오 기기를 구매하는 이유를 묻자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그가 이날 장만한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만카돈 '에스와이어'로 15cm 남짓한 정사각형 모양의 휴대용이다. 하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높은 34만9000원이다.

"음향 감상실에서 볼륨을 높이고 5분 정도 들었는데 과장을 약간 더해 홈시어터 수준이에요. 당치도 작은 녀석이 어떻게 이런 출력을 내뿜는지…. 가죽 패널과 금속으로 마감된 테두리도 럭셔리하고요. 비싼 거 아니냐고요? 미용실 몇 번 안 가면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이씨는 자신의 핸드백에 담긴 40만원대 프리미엄 헤드폰과 마스터링 사운드를 구현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잠시 뒤 매장에 들어선 최상우(28)씨는 블루투스 헤드폰 '소호'를 시연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페어링을 하더니 어느 순간 음악에 맞춰 머리와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음질에 만족했는지 최씨는 바로 계산대로 가 제품을 샀다. 25만3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부담스럽지 않으냐고 묻자 최씨는 "헤드밴드와 이어패드에 들어간 스테인리스와 고품질 가죽을 보라. 음질은 기본이고 어떻게 세련된 디자인을 갖춰야 들어다니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시간여 매장을 지켜보면서 놀란 것은 10대 청소년에서부터 40대 이상 중년층도 이들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점이다. 좋은 음악을 듣고자 하는 욕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일까.

하만카돈과 JBL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케이원에이브이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딸려 나오는 번들용 이어폰에 만족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늘면서 프리미엄 오디오 기기의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성능, 디자인에 따른 가격대가 워낙 다양해 관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중기자 zen@

부산
아쿠아
마스
Shark Santa is coming to
Busan Aquarium

승진시즌 '축하의 여왕' 꽃

연말 인사철 '선물 특수' 부담적은 손수건 등 인기

최근 기업에서 대규모 인사 이동이 한창이다. 연말연시 인사 시즌을 맞아 지인이나 동료들의 승진 축하 선물 구매가 늘면서 온라인몰에서도 꽃 배달 서비스, 손수건 등 관련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이 지난 2주간(11월 29일~12월 12일) 축하 화분 배달 서비스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51%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꽃다발, 꽃상자 배달 상품 판매도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연말은 졸업·입학 시즌도 아니고 어버이날 등 꽃 수요가 증가하는 다른 행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의 인사·승진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꽃 배달과 함께 떡케이크 등을 선물로 같이 보내주는 서비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실용적인 승진 선물인 넥타이와 손수건 판매도 증가했다. G마켓에서는 최근 2주 동안 전년 대비 넥타이 등의 판매가 24% 늘어났으며 여성용 손수건 판매는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노마, 닥스, 캐스팅밸로우 등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가 좋다.

반면에 고급 펜과 만년필 판매는 전년 대비 20%가량 감소했다. 만년필은 가장 대표적인 승진 선물 아이템으로 여겨져왔지만 고가 제품이 많아 최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G마켓 관계자는 "불황이 이어지면서 승진 선물도 만년필 등 고가 제품보다는 꽃바구니나 화분, 손수건 등 비교적 부담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가격대 제품들 위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효길기자 jung@metroseoul.co.kr

주말엔 '선데이 브런치' 먹을래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그랜드 힐튼 서울이 황금 같은 주말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브런치(브렉퍼스트+런치)를 즐기려는 현대인들을 위해 "선데이 브런치"를 새롭게 리뉴얼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호텔 지하 1층의 아이트리움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브런치 메뉴는 기본적으로 신선하게 준비된 20여 가지의 채소와 샐러드, 수프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 브런치에 메인 요리인 포크 와인 소스와 소안심과 전복 요리, 시금치와 스크램블드에그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홀랜다이즈 소스에 바닷가재 요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즐길 수 있다. 또 선데이 브런치를 주문하는 고객에 한해 식사와 함께 스파클링 와인이나 생과일 주스가 제공된다.

이 행사는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가격은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해 4만3000원부터 7만원까지다. 문의 (02)2287-8270 /김세희기자

송년 가계 부담 줄여주는 '착한 외식' 방법

강강술래 인기상품 할인 '드로잉쇼' 티켓 이벤트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 씀씀이가 커진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베스트셀러 상품 파격 할인 등 다채로운 송년 이벤트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인기 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 500g+돼지양념4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선물세트(350㎖·5팩·10인분) 2만2000원, 갈비탕 꼬리곰탕 선물세트(500㎖ 5봉) 2만5900원 등도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든 칠칠한우떡갈비(3세트 1.08㎏ 4만2000원)와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 1.08㎏ 2만52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역삼·서초·여의도·홍대·고양능곡·분당점은 연말까지 결제 금액에 따라 상품권(1만 원)을 최대 4매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매장별 문의). 주말에 서초와 여의도점은 양념갈비·한우모둠구이·한우궁중불고기 메뉴를, 역삼점은 양념갈비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준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리지널 드로잉쇼' 티켓도 증정한다. /정효길기자

고마운 이에게 공짜로 '속옷 선물'

게스 언더웨어·유니클로

연말을 맞아 패션업계에 선물 증정 이벤트가 한창이다. 긴 불황에 지친 한 해를 마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인에게 패션 아이템을 선물로 대신 보내준다.

게스 언더웨어는 쓸쓸한 솔로 친구를 소개하는 '팬심소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까지 게스 언더웨어 공식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낼 것 같은 솔로 친구를 소개하는 멘트와 해당 친구를 태그하면 16명을 뽑아 게스 언더웨어를 증정한다.

유니클로는 26일까지 총 1000명에게 엑스트라웜 히트텍을 선물로 보내주는 '유니버스 프렌즈 이벤트'를 펼친다. 유니클로 페이스북에서 히트텍을 선물하고 싶은 친구 2명을 선택해 사연을 입력하면 된다.

/박지현기자 jiwa@

스탠포드호텔, 통영에 520억 투자

스탠포드 호텔그룹은 최근 통영 거북선 호텔에서 권중갑(사진 가운데) 스탠포드 호텔그룹 회장, 이상춘(오른쪽) 경남도투자유치단장, 김동진(왼쪽) 통영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및 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스탠포드 호텔그룹은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배후 옆 부지에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투자비 520억원을 투자해 호텔(객실 150개), 콘도미니엄(객실 120개) 등 270개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과 다목적 컨벤션홀,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계획 설계와 건축 심의, 건축 허가 및 실시 설계가 진행되어 내년 6월 본격적인 착공 후 2016년 9월 호텔 및 콘도미니엄이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

권중갑 회장은 "통영음악당과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명품 호텔을 건립해 통영시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탠포드 호텔그룹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글로벌 호텔 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홍재원기자

오가게 '위클리 트렌드' 신설

온라인 패션 유통 전문기업 (위트라아싸몰(대표 최정석)이 운영하는 패션 트렌드 전문 쇼핑몰 '오가게'는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 등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전체 스타일링을 담당한 유명 스타일 디렉터 '조아라'와 함께 '위클리 트렌드' 메뉴를 신설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트렌디 세터들의 스타일링 따라잡기 ▲올겨울 잇 아이템 레더 제품에 대한 소개 ▲연말 파티룩 및 선물 제안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CJ E&M 유튜브 채널 안사이트 TV와 '보니 뷰티 다이어리'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보령메디앙스 '패밀리 세일'

보령메디앙스가 19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본사 대강당과 군포 드레인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맞이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아용 세제와 스킨케어, 의류와 식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가 많은 완구, 발육 제품 등 유아 관련 모든 품목들이 최대 80%까지 할인된다. 특히 스킨하과 유기두, 드림스튜디오, 닐리쁘띠랑, 베이비본 등 유명 완구 및 발육 제품들이 대거 방출된다.

단, 군포 드레인 매장은 의류 품목에 대해서만 패밀리 세일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맘 홈페이지(www.i-mo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저음 '반전매력' 뽐는 노력형 가수

'응사' OST '가질 수 없는 너'로 눈도장

하 이 니

독특한 보컬과 음악성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신인 가수 하이니(22)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하이니는 지난해 9월과 12월 tvN 드라마 '제3병원'과 디지털 싱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름을 알렸다. '응답하라 1994'의 OST '가질 수 없는 너'를 통해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외모가 아닌 음악성으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 1%의 영감 99%의 노력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다는 하이니는 초등학교 시절 학예회나 장기자랑에는 무조건 참가했다. 중학교 때부터는 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다. 13년 동안 음악을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 우연한 기회에 가수로 데뷔한 그는 "참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YG엔터테인먼트와

중학교때 본격 노래 배워 13년간 준비 끝 가수 데뷔

제 예명 하이니 베트남어 귀한 아기라는 뜻 담겼죠 나의 색으로 새 장르 도전

JYP엔터테인먼트 등에 오디션도 많이 봤어요. 합격했어도 작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드라마 OST 가이드 녹음을 하기 위해 작업실을 찾았다가 제작자의 눈에 띄어 가수로 데뷔했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는 말이 생각났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소속사에 수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온 연습생들과 장소만 달랐지 노력은 같았다.

◆베트남에서도 동시 주목

하이니는 베트남어로 '귀한 아이' 혹은 '귀한 아기'라는 뜻이다. 어릴 적부터 베트남에서 일하는 그의 아버지가 직접 붙여준 예명이다. 유리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청중에게 각인하기 위한 이름을 고민하던 차에 아버지가 직접 제안했던 이름이다. 덕분에 지난달 베트남에서 공식 데뷔식을 치른 하이니에 대한 현지의 호평과 찬사가 쏟아졌다.

그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내 가수로는 처음으로 베트남어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음파다. 국내 여성 보컬이 대부분 발라드풍에 고음을 고집하는 반면 매력적인 중저음과 풍부한 감성을 갖추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저음의 여성 보컬이 많지 않아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오디션 프로가 많이 나오고 다양한 개성의 참가자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고음을 내야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이 고음을 잘하시니까 전 제만의 색으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tvN '응답하라 1994' 속 정우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힌 하이니는 최근 출연진 사진과 응원문구가 새겨진 케이크를 들고 촬영장을 찾았다. 그는 "정우 선배님의 열연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의 감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CJ E&M 제공

◆제2의 라나 델 레이 꿈꾸다

하이니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고 싶어 했다. 닮고 싶은 가수로 라나 델 레이를 꼽았다. 라나 델 레이는 지난해 데뷔해 빌보드차트 2위, 영국 UK 차트 정상을 차지한 무서운 신인이다. 그의 1집은 '본 투 다이 (죽기 위해 태어났다)'였다. 관능적인 저음과 잿빛의 어두운 가사가 돋보이는 이 앨범은 미국에서 200만 장 넘게 판매됐다.

하이니는 "새로운 장르를 많이 시도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뻔한 음악을 하기보다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물론 대중의 음악 코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 1집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니가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기대된다.

/황상은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 | 디자인/이은지

<우주전쟁 그린 블록버스터>

‘엔더스 게임’ 엑소 효과 보나

VIP 시사회 참석 지원사격

올해 마지막 블록버스터 '엔더스 게임'(사진 위)이 대세 아이돌 엑소(아래)의 지원을 받는다.

온 가족이 즐길 SF 블록버스터로 주목받고 있는 '엔더스 게임'은 19일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엑소를 초대해 VIP 시사회를 개최한다.

'엔더스 게임'은 인기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원형이기도 한 동명 원작 소설 '엔더의 게임'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 영화 속 엔더(에이사 버터필드)의 시뮬레이션 전투와 전략 전술 능력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영화 홍보사 관계자는 "'엔더스 게임'은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선택된 소년 엔더가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엑소는 10대들의 우상이자 폭넓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엑소 멤버들이 SF적인 신비한 이미지를 지녔고, 게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초대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로비부터 ‘변화무쌍’ 천장스크린

CGV영등포 런던 모티브 문화광장 재탄생

CGV영등포가 23일 영국 런던 레스터 스퀘어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문화 광장 'CJ스퀘어' 콘셉트로 재탄생된다.

CGV영등포는 큰 빅토리 왓도그카 시네숍을 전진 배치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문화 광장으로 변modern된다. 로비 입구에서부터 광장 계단인 '그랜드 스테어'와 천장 스크린인 '스카이 갤러리'가 펼쳐지는 설계도 특징이다. 스카이 갤러리는 약 22m 길이의 천장 스크린으로, 특수 영상을 통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하늘을 느끼게 했다.

또 세계 최대 스크린을 보유한 스타리움에 크리스티 4K 듀얼 디지털 영사기와 소너티어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해 스크린의 밝기와 선명도를 향상시켰다.

유순호기자

star bag

이종석과 한솥밥 ··· 배우 변신

티아라 전 멤버 **화영**이 이종석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기자로 변신한다.

웰메이드 스타엠은 16일 "화영이 연기자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을 통해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대법원 선고 ··· 형량 관심

방송인 **고영욱**이 드디어 1년여 간 끌어온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받는다.

16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고영욱의 대법원 선고 공판 날짜는 26일로 정해졌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됐으나 또 다시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日 극비 입국에도 팬 300명

그룹 JYJ의 **김재중**이 극비 입국에도 일본 팬들의 환영을 받았다.

소속사는 16일 "김재중이 17~18일 열릴 오사카 공연을 위해 15일 일본으로 건너갔다"며 "비공개 입국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 명의 팬들이 간사이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어 관계자들은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김재중은 10월 정규 1집 'WWW' 후 첫 와이 콘 발매한 후 아시아투어 '2013 김재중 퍼스트 앨범 아시아 투어'를 벌이고 있다.

올해 콘서트 티켓 파워 1위

국제 가수 **싸이**가 올 한 해 가장 많은 콘서트 티켓을 팔았다.

공연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가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티켓 판매량을 기준으로 올 한 해 예매자들이 가장 많이 관람한 콘서트를 집계한 결과 이달 20~24일 열릴 싸이의 연말 콘서트 '달밤에 체조'가 연간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2위는 3만 명 규모의 잠실 주경기장을 유료 매진시킨 이문세의 '대한민국 이문세'로 집계됐다.

"화려한 캐스팅" vs "팀워크 있잖아"

내일 동시간대 첫방 '별그대' '미스코리아' 제작발표회

18일 밤10시에 첫 방송될 새 수목극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와 MBC '미스코리아'가 16일 동시에 제작발표회를 열며 전초전에 들어갔다.

높은 시청률로 끝난 '상속자들' 후속으로 방영될 '별그대'는 톱스타 전지현·김수현의 만남과 시청률 40%를 넘긴 KBS2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작가의 참여로 화제를 모으는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다.

천방지축 톱스타 천송이 역으로 14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게 된 전지현은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드라마를 촬영하니 떨리고 긴장된다"면서 "안방극장에 돌아오기까지는 신랑과 소속사의 응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과 두 번째 호흡을 맞추는 김수현은 "'도둑들'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면 전지현 선배님이 시집가기 전과 후 정도"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향단 캐스팅 등 겉으로 드러나는 전력에서는 '별그대'가 월등히 앞서지만 '미스코리아'도 '파스타' 의 권석장 PD와 서숙향 작가, 이선균이 다시 뭉친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극중 퀸 메이커로 나서는 김형준을 연기할 이선균은 "('별그대'가)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다.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고 '상속자들'의 힘을 받은 작품이라 솔직히 걱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드라마는 배우들의 호흡이 좋기 때문에 팀워크로 치고 올라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6일 SBS '별에서 온 그대'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전지현과 김수현. /SBS 제공

MBC '미스코리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선균과 이연희. /MBC 제공

전지현과 상대적인 이연희의 미모를 비교하는 질문에도 "당연히 이연희가 예쁘다. 내 파트너니까 당연히 예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스코리아 도전에 나서는 오지영을 연기할 이연희 역시 경쟁작과의 비교에 "선균 오빠의 말씀에 공감한다. 미스코리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현실적인 로맨스 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기자 ssk0427@metroseoul.co.kr

"섹시 보사노바 들어보실래요?"

손담비 '레드 캔들' 들고 1년만에 가요계 컴백

손담비(사진)가 섹시한 매력을 한껏 살린 보사노바를 들고 1년여 만에 가요계로 컴백한다.

손담비는 23일 세 번째 티저 싱글 '레드 캔들'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미니앨범 '눈물이 주르륵' 발표 이후 방송 활동에 전념해온 그는 본업으로 돌아와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댄싱 퀸으로 불리며 화려한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을 해왔던 그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음악성을 내세우며 보컬리스트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드 캔들'은 보사노바로 몽환적이고 섹시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이다. 쉽게 녹아내리고 약한 바람에도 꺼지는 향초의 불안함으로 사랑에 빠져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여인의 감성을 표현했다. /유순호기자

장범준·송지수 내년 결혼

남성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보컬 장범준(사진 왼쪽)이 내년 봄 신인 배우 송지수(오른쪽)와 결혼한다.

소속사인 청춘뮤직은 16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범준이 내년 봄 결혼하게 됐다"며 "당초 연대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내년에 태어날 소중한 아이가 생겨 결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범준과의 열애가 알려져 화제를 모은 송지수는 그해 MBC 일일극 '그대 없인 못살아'로 데뷔했으며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등에 출연했다.

소속사는 또 버스커버스커가 활동을 중단하며 멤버 각각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소속사는 "멤버들의 마음속에는 버스커버스커 이전에 원래 꿈꾸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고 팀 활동이 커지면서 이 일들은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점을 계기로 각자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버스커버스커 활동은 잠시 멈추고 각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기자

꽁꽁 언 겨울 소양호에선 얼음구멍마다 가족들의 웃음꽃이 핀다. 어린 아이들은 물 위에서 꼬물대는 빙어를 낚아채며 생애 첫 손맛에 빠져들고 얼음이 얼어붙는 호숫가에 바우린 빙어회 맛으로 일상의 피로를 푼다.

겨울 빙어 잡으러 소양호로!

'겨울축제의 갑' 인제빙어축제 내년 1월 18일 개막

겨울 축제의 원조, 인제빙어축제가 다가온다. 내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9일간 강원 인제군 인제대교 일대 소양호에서 '빙하시대! 놀어천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맑고 투명한 빙어와 눈 덮인 내설악 경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산촌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겨울 빙어를 잡으러 떠나보자.

◆CNN에 소개된 '소양호의 요정'

지난 1998년 시작된 축제의 주인공은 공어, 은어, 방어, 병어, 빙어라고 불리기도 하는 빙어다. 빙어는 차고 깨끗한 물에서만 산란하는 냉대성 어종인데 인제 빙어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소양호에서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매년 겨울이 되면 소양강 최상류인 축제장은 내설악의 북풍으로 거대한 얼음벌을 빚어내 빙어를 호수의 요정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매력으로 축제는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의 전국 3대 우수 축제로 선정된 바 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는 한국 여행 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에 축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자연산 빙어를 직접 잡아 '꿀꺽'

축제에서는 빙어를 직접 잡고 맛보고 즐길 수 있다. 빙어 낚시로 갓 잡은 싱싱한 빙어를 즉석에서 초장에 찍어 맛볼 수 있으며 내가 잡은 빙어를 현장에서 튀김과 비빔 등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또 관람객과 주민이 함께 내림그물로 민물고기를 잡는 소양호 어들털기가 축제 기간 동안 이어지며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얼려라 빙어세상, 빙어마을 평생학습 체험마당, 빙어마을 탄매음 가족 백일장 등도 준비된다.

특히 빙어먹거리촌, 산촌먹거리촌, 추억의 먹거리촌 등에서는 1급수 맑은 소양호에서 잡아 올린 자연산 빙어를 재료로 한 빙어회 무침, 튀김 등과 산촌의 전통 먹거리를 실컷 맛볼 수 있다. 게다가 소양호 어들털기에서 함께 잡은 물고기를 대형 가마솥에 끓여 나눠 먹는 새해소망 어죽 나눔 행사, 빙어 영문이 비빔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겨울을 즐기는 40여가지 방법

빙어가 축제의 주인공이지만 축제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누구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4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우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볼거리가 눈에 띈다. 이색 겨울 풍경으로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대형 눈조각과 얼음 터널, 비상하는 빙어 조형물과 얼음숲 공원이 조성됐으며 소원 섬쥐 바람개비동산, 빙어마을 솟대공원 등도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인제의 모토인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풍부한데 빙어마을 썰매썰매장, 소양강 둘레길 트레킹 대회, 산촌문화 체험, 아이스모빌 투어, 빙벽 타기, 전국얼음 축구대회, 전국 빙어 노래자랑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인제의 산이조, 산나물, 인제군 5대 명품 특산물(황태, 곰취, 풋고추, 쌀, 오미자) 등을 직거래하는 내설악 풍물5일장을 비롯해 다양한 산촌마켓이 운영되며 우리의 고유한 농·산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농촌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날짜: 내년 1월 18일(토)~26일(일)
-장소: 강원 인제군 남면 인제대교 변 소양호 일대
-문의: 인제군문화재단 033)460-8572~5

구석구석

◆평창송어축제
-날짜: 12월 20일~내년 2월 2일
-장소: 강원 평창군 오대천 일원

눈과 얼음, 그리고 송어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송어를 직접 잡고 맛볼 수 있는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맨손 잡기, 얼음낚시, 텐트낚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어를 잡을 수 있으며 잡는 즉시 회와 구이로 송어를 요리해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도 제공된다. 또 눈썰매, 전통 썰매, 얼음자전거 등 놀이시설도 마련된다.

◆천북굴축제
-날짜: 12월 21일~22일
-장소: 충남 보령시 천북굴단지

축제는 '따뜻한 사랑 나눔 건강 요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서해인 제일의 별미라는 천북 굴을 이용한 굴밥, 굴구이, 굴칼국수 등을 맛볼 수 있다. 또 관광객 노래자랑, 각설이 공연, 불꽃놀이 등이 이어지며 봉화산, 성주산자연휴양림 등도 돌아볼 수 있다.

◆대둔산수락계곡얼음축제
-날짜: 12월 24일~내년 1월 20일
-장소: 충남 논산시 수락계곡

축제는 곰식 행사를 비롯해 얼음봅슬레이, 눈썰매, 얼음썰매, 이글루카페, 눈놀이터 등의 체험 행사와 얼음 하늘기둥, 얼음꽃병풍, 산골장터 등의 전시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또 상설 행사, 주말 소공연 등도 준비되며 금·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운영된다.

방동약수·대승폭포·십이선녀탕…전설 흐르는 인제

인제 곳곳에는 전설이 깃든 명소가 많다.

◆산삼 캔 자리 샘솟는 방동약수

300여 년 전 한 심마니가 꿈에 나타난 백발 노인이 알려준 자리에서 60년생의 씨가 달린 산삼 '육구만달'을 캔 후 생이 솟아 방동약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더욱이 아픈 노모를 위해 강릉에서 이 약수를 찾아 먼 길을 온 '약수 효녀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대승 총각 효송 구한 모성애

대승폭포(사진)에서는 대승 총각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총각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버섯을 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포 절벽에서 밧줄을 매고 버섯을 따던 총각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절벽 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절벽을 오르게 된다. 절벽에 올라서자 어머니는 없고 지네가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머니의 외침 덕에 총각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 불렀다.

◆사랑도 이어주는 십이선녀탕

인제 십이선녀탕은 옛날 천상계의 열두 선녀들이 한밤중에 내려와 달빛 아래 목욕을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여기에 십이선녀탕 주위의 돌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돌을 두 개 찾아 자신과 상대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어진다는 '사랑돌 이야기'도 십이선녀탕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황재용기자

김연아 국내서 최종 리허설

내년 1월 종합선수권 출전…소치올림픽 앞두고 금메달 마지막 담금질

'피겨 여왕' 김연아(23·사진)의 현역 시즌 마지막 국내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16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연아는 내년 1월 3~5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리는 제68회 전국남녀 종합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달 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부상 후유증을 완벽히 털어낸 그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대회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김연아가 국내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실전 경기를 펼치는 무대다. 마지막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몰릴 전망이라 김연아는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느낄 긴장감을 미리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데뷔 이후 국내 대회에 좀처럼 나서지 않은 김연아에게 이번 대회는 두 번째 종합선수권대회다. 지난해 소치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선수 복귀를 선언한 뒤 올해 1월 7년 만에 종합선수권대회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회에서 김연아는 201.77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당시 김연아는 소규모 대회인 독일 'NRW트로피'와 종합선수권대회를 연달아 소화한 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년 만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같은 금빛 패턴을 다시 반복하게 됐다. 김연아는 8일 막 내린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204.49점으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연아 외에도 소치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박소연(16·신목고)을 비롯한 50여 명의 남녀 유망주가 출전한다. KBS가 4~5일 대회를 생중계한다.

/유순호기자

서울 SK 나이츠 애런 헤인즈, 문경은 감독, 이성경 단장(오른쪽부터)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KCC 이지스 김민구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성 플레이' 헤인즈 2경기 못 뛴다

제재금 500만원도…"김민구·KCC·모든 팬들에게 사과"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의 애런 헤인즈가 폭력성 플레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헤인즈는 16일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민구, KCC, 모든 팬들에게 사과한다"며 "김민구가 빨리 회복해 코트에 나섰으면 좋겠다. 김민구를 만나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헤인즈는 14일 전주 KCC 이지스와의 경기 중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심판의 눈을 피해 상대 가드 김민구를 가격했다. 김민구는 코트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헤인즈는 "경기가 약간 과열된 상황에서 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이어 "모든 팬에게 다시 사과하고 코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만회하겠다"며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SK 문경은 감독도 "김민구, KCC 허재 감독에게 잘못을 사과한다. 김민구의 빠른 복귀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앞으로 SK 선수들은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어 2경기 출장 정지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함께 구단의 자체 징계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야구 자율훈련 정착 선결요건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시즌이 끝나자 9개 구단에 공문을 보냈다. 새해 첫 훈련을 1월 15일 이후에 시작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도 운영팀장 회의를 거쳐 "이제 우리도 룰을 지키자"며 새해 훈련 일정을 15일을 기점으로 짜기로 합의했다.

선수협회의 이 같은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선수들의 참가 활동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즉 10개월치 급료만 받는다. 12월과 1월은 월급이 없는 비활동 기간이다. 다음 시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구단 훈련에 참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올해까지 대부분 구단은 1월 초에 새해 첫 훈련을 시작했다. 선수들은 새해 떡국을 먹자마자 운동장에 나와 합동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시 됐다.

최근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선수들이 알아서 훈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최대 80억원짜리 고액 자유계약선수(FA)들이 생기면서 몸 관리는 곧 돈이라는 공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이나 미국은 비활동 기간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 기간에는 구단 유니폼도 입지 않는다. 대신 구단은 훈련시설을 개방해 자율 훈련을 돕는다. 선수들은 개인 운동복을 입고 자율 훈련을 한다. 연봉을 많이 받는 스타 선수와 후배들이 삼삼오오 모여 해외 훈련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신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스프링캠프는 강도가 다르다. 선수들이 완벽하게 몸을 만들었다는 가정 아래 훈련 프로그램을 짠다. 1주일 정도 지나면 실전에 돌입한다. 몸을 만들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시스템이다. 메이저리그는 2월 하순부터 스프링캠프를 시작하고 곧바로 시범 경기에 돌입한다. 잘하면 연봉 100억원이 넘으니 훈련을 말려도 알아서 한다.

향후 한국도 1월 15일이 아닌 2월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한때 경쟁적으로 펼친 60일짜리 초장기 스프링캠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단 훈련 기간이 길다고 우승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의식 개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율 훈련의 정착이 선결 요건이기 때문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박지성 선발…팀 무승 탈출

박지성(32·PSV 에인트호번)이 7경기 만에 선발 출장해 위기의 팀을 구했다.

박지성은 16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스타디온 갈겐바르트에서 열린 FC 위트레흐트와의 2013~2014 에레디비지에 17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79분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7경기 연속 무승(2무5패)으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에인트호번은 박지성의 복귀와 함께 8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

/유순호기자

U-22 축구대표팀 첫 훈련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이 16일 경남 창원 통도시 자이도원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다. 40여명을 소집해 25일까지 실시하는 훈련을 통해 내년 1월 11일 오만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2 챔피언십에 참가할 23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U-20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을 이뤄낸 이 감독은 대표팀을 이끌고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김현수 4억5000만원 재계약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25)가 비(非) 자유계약선수(FA) 야수 중 팀 역대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했다.

김현수는 16일 지난해(3억1000만원)보다 45.2% 오른 4억5000만원에 두산과 재계약했다. 김동주가 2007년 4억2000만원에 재계약한 것을 제치고 FA를 제외한 야수 중 최고 연봉을 받게 됐다.

김현수는 올 시즌 122경기에 나와 타율 0.302, 16홈런 90타점을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다.

한편 두산은 이날 이원석과 5000만원 인상된 1억5000만원에, 최주환과 800만원 오른 5800만원에 재계약했다. 넥센에서 온 장민석(개명 전 장기영)과는 3800만원 오른 1억2500만원에 계약했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16일

삼성썬더스	19	14	20	18	71
KGC인삼공사	12	18	16	16	62

metro HongKong

大麻果味扮

metro Mexico

Son los videos más buscados en 2013

싸이 '젠틀맨' 뮤비 유튜브 조회수 1위

올해 멕시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동영상으로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소개된 '젠틀맨'은 현재 조회 수 6억 건을 넘어섰다. 4월에 신곡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싸이는 멕시코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2위는 멕시코 MS 밴드의 '존재 이유'가 조회 수 3100만 건을 기록하며 차지했다. MS 밴드는 신인이지만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로 급부상했다.

metro Brazil

Incendio em favela deixa mais de mil desabrigados

대형 빈민촌 불… 주민 1000명 집 잃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두 번째로 큰 빈민촌인 파라이소폴리스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가옥 175채가 전소되고 1000명 이상이 주 거처를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파울루시 소방서는 빈민촌에 화재가 발생해 마을 부지 약 2000㎡를 태웠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20대가 불길을 잡으려 노력했으나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4시간이나 걸렸다. 그나마 때마침 비가 내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metro France

당신도 혹시 프레젠티즘?

효율 제로 근무에 연간 4조원 낭비

프랑스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일중독을 막기 위한 지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야근이 잦은 경우, 주말에도 업무 관련 e메일을 보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도 회사의 요구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프레젠티즘(presenteeism)'을 의심해 봐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집중력 저하나 업무 부담감으로 초과 노동을 하는 프레젠티즘을 겪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프레젠티즘을 겪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나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와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 저녁 7~8시까지 사무실에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프레젠티즘연구소의 제롬 발라랑은 "일의 능률에는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잡아먹게 된다"고 설명했다.

발라랑은 "프레젠티즘으로 겪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연간 30억 유로(약 4조34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피해액은 결근으로 인한 것보다 높다. 또한 분석 결과 여가 시간에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경우 업무에 대해 더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성부는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연구소에 일중독 노표 제작을 지시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업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15가지 약속'을 만들기도 했다. 늦은 시간 및 주말에 e메일 전송 금지, 아침 9시 전이나 저녁 6시 이후 미팅 금지와 같은 약속에 대해 16개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코카콜라, BNP 파리바와 같은 기업들도 이번주부터 지침을 적용했다.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서명하면 지침이 도입된다.

/엘리 벤될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합성대마에 취한 '홍콩의 밤'

크리스마스 앞두고 젊은층 환각파티에 무분별 사용…독성 4~10배 강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

최근 홍콩에서 '합성대마초'라는 신종 마약이 등장해 논란이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젊은층이 비밀리에 '환각 파티'를 열어 신종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말 한 남성이 다이각주이(大角咀) 지역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28.6g이다. 다음날 경찰은 이 남성의 숙소에서 코카인 17g, 합성대마초 1857g을 추가로 발견했다. 39만 홍콩달러(약 50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왕자오(旺角) 지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7% 증가한 총 398건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고, 489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10~20세 청소년 사건이 27건이나 됐다. 적발한 마약은 벤사클리딘(동물 마취제)이 6181g으로 가장 많았고, 코카인(4416g)과 필로폰(2987g)이 뒤를 이었다.

합성대마초는 최근 유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된다. 마약 판매업자들은 대마초 추출물을 식물에 뿌려 마약을 만드는데 복용자들은 이를 담배처럼 말아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서는 '향료'라는 은어로 자주 불린다.

합성대마초의 냄새는 일반 대마초와 유사하지만 독성은 4~10배가량 높아 환각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기억력 감퇴, 호흡기 손상 등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파는 합성대마초 한 봉지(약 3g)의 가격은 28~35달러(약 3만~3만5000원)로 홍콩에서는 1000홍콩달러(약 13만원)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법으로 모텔이나 임대주택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해 수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의 한 수입품 판매점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사탕'을 공공연히 팔다가 얼마 전 경찰에 적발됐다. 막대사탕 형태를 하고 버젓이 팔리고 있던 대마사탕은 네덜란드산이다.

이 사탕을 맛본 한 시민은 "처음 먹을 때는 단맛이 나는데 점점 대마의 쌉쌀한 맛이 난다"면서 "대마초처럼 환각 현상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 기자